

다산포럼



김성수
성균관대 학부대학 글쓰기 교수

코로나19 사태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일상과 의식 속에서 북한이란 존재가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 다들 자기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들다는데 남북관계에 대해 말을 꺼내려니 편지받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2000년 6·15선언에 힘입어 '통일 문학론'을 제창한 바 있다. 마치 코리아 단일팀 축구와 탁구의 성공 사례처럼 남북이 자랑하는 문학을 화합적으로 결합하자는 제안이었다. 일제 강점기 최고의 역사소설 '임꺽정'의 리얼리즘 전통이 이남의 '토지' '장길산' '태백산맥'과 이북의 '두만강', '갑오농민전쟁' 등으로 이어졌으니 이를 중심으로 통일 문학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난 세월은 그러한 문학적 상상력을 허용하지 않았다. 민족감정에 기대고 구호만 앞선 통일 운운이 실은 분단으로 이득 보는 권력층의 자기중심적 흡수 통합의 속내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가령 서울과 평양에서 나온 '통일 문학' 이름의 잡지 6종과 전집 2종을 비교해 보니 실상은 기대와 크게 달랐다. 한국 문

통일 문학 2.0

학과 '조선 문학'의 대표작을 합친 통일 문학이 아니라, 평양이 보고 싶은 '남조선 문학'과 서울이 알고 싶은 '북한 문학'을 붙여서 통일 문학이라고 내세웠을 뿐이다. 그것은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 편집한 허상에 가깝다. 어디 문학뿐이라.

코로나19 사태로 인류 문명사가 전환기를 맞은 지금, 성급하게 20세기식 통일을 구호처럼 반복할 수는 없다. 일상을 파괴하는 분단과 냉전 체제를 끝내고 불가역적인 평화 시대를 정착시킬 때다. '평화 체제'를 향한 코리아 문학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남북이 대화할 때 통역이 필요 없고 작품을 읽을 때 번역이 필요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마음의 문을 열고 문학예술을 통해 상대의 삶과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를 통해 한겨레 소프트웨어의 힘을 신뢰하고 '내부 냉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흑여 급변 사태로 흡수 통일이 되면 극심한 지역·계급·이념 갈등이 폭발할 테니, 그를 막을 '마음의 통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런 준비는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해야 한다. 우리 특유의 '빨리빨리' '속도전' '동양 최대' 같은 조급증과 무리수, 그리고 엄숙주의를 경계해야 할 터이다.

여기서 엄숙주의 경계란 민족·통일이란 이념적 당위를 내세워 일상을 억압하는 장치가 되는 것을 경계하자는 뜻이다.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거나 "금수저 흡수제" "건물주" 식으로 무한경쟁에 시달리는 이남 '국민'과, "지도자를 때려받고 자력갱생하자!"는 이북 '공민'이 "싸우면서 건설하자!" 식의 상시적 전쟁 공포와 체제 경쟁에서 벗어나면 된다. 1등주의에 빠져 업무 노동과

학습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와, "사랑 한 알보다 총알 한 방이 더 중요하다"는 이북 사람들이 벼랑 끝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문학예술이 웃음과 여유를 되찾게 하면 된다.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고.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이 비난조차 하지 않는 무대응은 남북 관계에선 치명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남북 관계는 최악의 위기지만, 이때가 바로 소통의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할 기회이기도 하다. 가칭 'e-Korea'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 '코리아-한겨레 디아스포라(이산)-한국어권(Koreanophone)' 콘텐츠의 소통 창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좁은 의미의 (남)한국+(북)조선 문학뿐만 아니라, 전 지구를 넘나드는 한겨레의 한글문화를 담아낸 '한겨레 문화 콘텐츠'의 디지털 옹공로를 상상한다. 남북의 시집·소설책·문예지 같은 종이책을 스캔하여 '책 읽어 주고 화편과 음악도 담긴 동영상'으로 만들자. 유튜브 같은 인터넷을 통해 남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겨레 디아스포라, 한글 사용자나 문학으로 소통하며 마음의 통합을 도모하면, 그것이 통일 문학 2.0이 될 것이다.

이념과 문화와 가치관이 서로 다른 분단 당사자도 최소한의 이해·소통·교류를 일종의 시뮬레이션 e게임처럼 즐기는 정도면 된다. 남북 대표가 만나 사진 찍는 식으로 통일을 이미지로만 소비하면 안 된다. 상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정보·소통도 태부족인 채 곧바로 통일·통합을 고집스레 외치지 말자. 통일보다 통이(通異), 소통이 중요하다.

기고

2000년 전 북암리 마을 다시금 옛보다



이지영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사

속 깊이 잠들어 있던 고대 북암리 마을의 흔적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북암리 고분군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곳, 북암리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가 2018년 다시 시작되었다. 뜻하지 않게도 북암리 고분을 축조하였던 시기보다 조금 더 오래된, 흔히 마한으로 불리는 철기시대 마을의 흔적이 드러났다. 2000여 년 전, 마을의 가장자리를 따라 넓게 뿔뿔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랑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도랑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이 흐르는 시설로, 고대 마을이나 성(城)의 외곽에는 큰 도랑을 둘러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외에도 도랑은 고대 마을의 신성한 영역을 구분 짓는 경계의 의미를 담기도 한다. 북암리 유적에서 발견된 도랑은 최대 3m 정도의 폭으로 등글게 돌아가는 형태이며, 일부 구간에서는 다섯 개의 도랑이 여러 겹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넓고 견고한 도랑을 두르고 있었던 마을은 무언가 중요한 시설이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도랑 내부에는 2000여 년 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음식물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데 사용한 항아리, 의례용으로 사용한 굽이 달린 토기, 길흉화복을 점치는 점뽕(卜骨), 웃감을 만드는 실 짜는 도구인 가락바퀴(紡錘車), 당시의 동물상을 확인할 수 있는 소·돼지·사슴 등의 뼈조각 등이 함께 발견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북암리 유적의 도랑에서는 제주도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항아리와 현무암 덩어리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불과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나주 랑동 유적에서는 중국 신(新)나라의 동전인 화천(貨泉)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고대 해상 교역의 거점 유적으로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진 해남 군곡리 패총(사적 제449호)에서 출토된 유물과 매우 닮아 있는 모습이다. 즉 제주도 또는 중국을 잇는 교역로가 바다길뿐만 아니라 영산강을 따라 내륙 깊숙한 곳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발견된 것이다.

북암리 마을은 대외 교류의 거점 역할을 할 정도로 높은 위상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세력은 이후 북암리 일대에 거대한 고분이 등장하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고분을 축조하던 시기에는 나주 랑동 유적과 나주 다시들 유적에서 조사된 집자리를 통해 마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랑동 유적에서는 한 번의 길이가 10m가 넘는 대형급 집자리가 발견되어 마을의 세력을 보여준다.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며 발전해 나가던 북암리 마을을 비롯한 영산강 유역 일대는 6세기 중엽 이후 백제에 편입된다. 하지만 북암리 마을의 중심적인 역할은 여전히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성이나 관청 등 거점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목간(木簡) 글을 적는 나무 조각)이 2008년 북암리 유적에서 발견되면서 북암리 일대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고대 북암리 마을은 오랜 기간 영산강 유역 일대의 중추적인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지금의 한적한 북암리 주변 모습에서 과거를 쉽게 짐작하기 어렵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거대한 고분의 모습은 과거의 영광을 보여주는 듯하다. 앞으로도 고대 북암리 마을의 숨은 가치가 더욱 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청춘 특특

당(糖) 섭취 줄이기

다. 달달한 음식이나 초콜릿, 과자 등을 먹게 되면 급속하게 혈당이 오른다. 당 충전으로 혈당치가 올라가게 되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도파민 호르몬으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게 하고,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 체지방 축적이 일어난다. 빨리 당 충전이 된 만큼 빨리 당이 떨어져 공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혈당은 오르는 속도와 떨어지는 속도가 비례한다. 그래서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인 도넛·라면·튀김류 등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금방 허기짐을 느끼게 한다. 공장 시간에 출출할 때 에너지바나 과자 등을 먹었지만, 금세 배가 고팠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혈당 지수가 55 이하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고 본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는 단호박·감자·카레·우유 등이 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위주로 먹으면 혈당이 느리게 올라가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된다. 다이어트를 할 때 주로 먹는 현미밥·해조류·사과 등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이다.

필자는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자연 식물성 다이어트, 저탄고지(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간헐적 단식 등을 해본 적이 있다.

그중에 제일 효과를 많이 봤던 다이어트는 다름 아닌 '학식 다이어트'다. 학교 기숙사에 살았을 때 아침은 간

단한 과일이나 미숫가루와 같은 셰이크 제품을 마셨고, 점심과 저녁을 학식으로 먹으면서 운동했던 다이어트다. 이때 지켰던 점은 과자를 비롯한 군것질을 하지 않았고, 저녁을 먹자마자 학교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다. 놀랍게도 약 10kg 정도를 건강하게 감량할 수 있었는데, 섭취하는 음식의 당을 줄인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래서 다이어트 후에도 요거트나 드레싱 제품 등을 구매할 때 영양 성분표에서 당류 함량을 제일 먼저 확인한다.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성인 열량 권장량 기준이 25g이기 때문에 1회 제공량당 당류가 적어도 10g 미만인지 확인한다. 후식, 간식 등으로 단 음식이 먹고 싶다면 과일, 채소 등으로 대체해 생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다. 또 빵을 좋아한다면 먹을 때 채소와 치즈 등을 더해 포만감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우리가 먹는 게 곧 우리 자신이 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기분 또한 맑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건강한 식습관은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을 줄이면 고혈압·당뇨·비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저혈당 식사로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를 보내면 좋겠다.

社說

낙후지역 기반시설 설치 제도적 뒷받침을

백년하청(百年河清).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어려움에 이르른 말이다. 전남 지역 현안 사업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말이기도 하다.

일례를 들자면 호남선 복선화에 90년이 소요된 것처럼 고흥-완도 간 국도 승강이 지났지만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단의 대책은커녕 과거 정부 사업 반영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기울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낙후된 기반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정부 부처 계획이나 내년 예산에 신규 사업 반영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들은 여전히 경제성이나 수요만을 앞세운다. 게다가 최근 지역 출신 고위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마저 와해되면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화물차 주택가 주차 느슨한 단속 때문 아닌가

광주 지역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도심 주택가 불법 주차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가운데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화물차운차 운수사업법상 운송 사업자는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돼 있다. 전용 차고지를 벗어나 새벽 0시~4시 사이 동일한 장소에서 한 시간 이상 고정 주차를 하면 과징금 20만 원(5톤 이상)이 부과된다. 광주 지역에서 이를 위반하고 밤샘 주차를 하다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7년 2223건, 2018년 5111건, 2019년 5506건, 2020년 5600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화물차 불법 주차가 횡행하는 곳은 대부분 아파트나 주택가 이면도로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순환도로 인근 간선도로변에서도

내 기류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탄식하기도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역·교류·관광 등에 필요한 무안국제공항과 흑산공항 및 광양항, 그리고 철도망과 도로망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전남은 정부 부처의 우선순위에서 늘 뒤처지며 매년 같은 사안을 들고 정부 부처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충청권·동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부족하고 정부 부처가 강조하는 수요·경제성 등이 미흡한 데다, 지역 출신 고위 공직자들도 거의 사라져 '기밀 언택'조차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갈수록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낙후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우선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정이나 정부 부처의 기반시설 설치 기준 변경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

대형 화물차들이 마구잡이로 주차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화물차를 위한 공영 차고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도심 외곽에 조성한 공영 차고지는 늘 한산한 편이다. 광주일보 취재 팀이 지난 14일 새벽에 찾은 진곡·평동 3차 화물차 공영 차고지는 주차 공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 광주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1만 3800여 대이고 공영 차고지 주차 면수는 고작 658면인데도 남아도는 것이다.

이는 멀리 떨어진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신고해 놓고 정작 주차는 자신의 집 근처에 하는 화물차주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최근 행정당국이 계도 중심의 단속을 펼치면서 불법 주차가 고질적인 도시문제로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앞으로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공영 차고지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

無等鼓

입시·병역·부동산 문제는 '민심의 3대 역린(逆鱗)'으로 꼽힌다. 역린은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 군주(민심)의 노여움을 지칭하는 말이다. 정치사를 보면 민심의 역린을 건드린 정권은 독특한 대가를 치렀다. 비근한 예로 불과 4년 전, 비선 실세 자녀의 입시 부정 문제로 촉발된 민심의 분노는 박근혜 정부를 비참하게 무너뜨렸고, 촛불 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들어서게 하는 핵심 동력이 된 바 있다.

3대 역린 가운데 부동산 문제는 삶의 근간이 라는 점에서 폭발성이 가장 크다. 한때 문재인 정부는 허술한 부동산 정책으로 성난 민심을 불을 붙이고 있다. 그동안 25차례나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터지고 이어진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도 사실상 '맹탕'에 그쳐 민심의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이는 차명으로 이뤄지는 투기 거래 특성상, 공직자 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투기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실효성이 없

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결과다. 이에 투기할 돈도 정보도 없는 서민들의 분노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촛불 정권'에서마저 불공정과 불의가 여전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파를 최소화하려 '발본색원'을 외쳤던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흑 때려라 흑 불인' 딱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제 여권은 더 이상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우선 2차 조사를 받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민심이 공감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것이다. 여기에 여당은 공직사회의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촘촘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여권은 4월 재보궐선거에서 밀패는 물론 내년 정권 재창출의 꿈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분노한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